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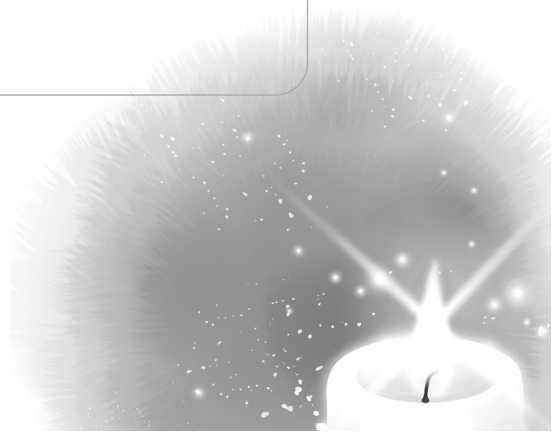
사도 바울의 사역관: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중심으로  
The Apostle Paul's View of the Ministry focused  
on Colossians 1:24-29

임영효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면서 | 293
2. 사역의 근거 | 295
3. 사역의 정신 | 297
4. 사역의 고난 | 299
5. 사역의 영역 | 303
6. 사역의 주제 | 307
7. 사역의 내용과 형태 | 310
8. 사역의 목표 | 314
9. 사역의 원천과 자세 | 316
10. 나오면서 | 318



## 사도 바울의 사역관: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중심으로

사역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소중한 논제였으며 교회들을 향한 그의 서신들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주제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경이감을 결코 상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역의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지만 사역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불변의 사역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특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사역의 결과로 사도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은 이방인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선교서신이다. 옥중에서 기록하여 보낸 본 서신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의 10가지 독특한 요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문의 사역의 원리는 그것은 특별히 전문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역의 근거, 사역의 정신, 사역의 고난, 사역의 영역, 사역의 주체, 사역의 내용과 형태, 사역의 목표, 사역의 원천과 자세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골로새서의 본문이 보여주는 10가지 사역의 독특한 요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9)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자세로 그 사역으로 부르신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소망가운데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Apostle Paul's View of  
the Ministry focused on  
Colossians 1:24-29*

주요어

사역, 고난, 일군, 영광, 비밀, 선포, 권함, 가르침

## Abstract

### The Apostle Paul' s View of the Ministry focused on Colossians 1:24-29

Prof. Dr. YoungHyo Im

The ministry was a topic that was dear to the heart of the apostle Paul, and it was a frequent theme in his letters toward churches. He never lost the sense of wonder that God called him to the ministry.

Generally the methods of the ministry assume the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times and circumstances, but the principles of the ministry is never changed, and are given unchangeable rules which could be applicable to every time and every situation. Thus the ministry of God always set up on the basic principles.

Especially,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was a missionary letter which was sent to the church of Colosse built by Epaphras, who was reared by the apostle Paul. In this Epistle from 1:24 to 1:29 the apostle Paul mentions the specific 10 elements of the church ministry.

The principles of ministry in this letter will be especially profitable for those who are in the professional ministry, but also it will be equally helpful for every sincere believer, for we are all called to the ministry.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basis of the ministry, the spirit of the ministry, the suffering of the ministry, the scope of the ministry, the subject of the ministry, the content and style of the ministry, the purpose of the ministry, and the source and attitude of the ministry will be consulted according to the text.

As the apostle Paul did, all the called Christians in this age are living with the mission of the ministry the Lord Jesus has given us. So the specific 10 elements of the ministry which the text of this Epistle shows should apply to all the contemporary Christians.

In the field of our ministry like the apostle Paul the fruit of the ministry will be produced abundantly, when we become to act according to the exhortation of the apostle Paul, that is,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 - 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Php 4:9).

In conclusion, all the Christians who are called by the Lord should never forget that the ministry of service according to the mission which was given by the Lord is a wonderful grace and privilege. Therefore, with the humble attitude and hope like the apostle Paul, the contemporary Christians should finish the race contemplating the reward of the Lord, and rejoicing even the sufferings for the sake of Him.

Keywords | ministry, suffering, servant, glory, mystery, proclaim, admonishing, teaching

## 1. 들어가면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의 담임목사인 존 맥아더는 “사역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소중한 문제였으며 그의 서신들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주제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경이감을 결코 상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싫증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1)</sup>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지 동료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전 1:12-13)고 자신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역의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지만 사역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불변의 사역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워렌 위어스비 (Warren W. Wiersbe)는 “방법 이면에 존재하는 원리들을 먼저 이해하지도 않은 채 단지 다른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나침반도 배의 키도 모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는 결국 폭풍이 몰아치는 사역의 바다 위에서 정처없이 표류하게 될 것이다. ...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영리한 방법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sup>2)</sup> 따라서 부름받은

1) John F.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Chicago: Moody Press, 1992), 69.

2) Warren W. Wiersbe, *On Being a Servant of God*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사역의 원리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추적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골로새서는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사역(주후 54-57년경)의 결과로 사도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은 이방인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선교서신이다. 옥중에서 기록하여 보낸 본 서신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의 10가지 독특한 요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켄트 휴즈(R. Kent Hughes)는 본문에 대하여 “그것은 특별히 전문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해진 직업이 무엇이든지간에 ‘사역’(ministry)에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sup>3)</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역의 근거, 사역의 정신, 사역의 고난, 사역의 영역, 사역의 주체, 사역의 내용과 형태, 사역의 목표, 사역의 원천과 자세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993), 최용수 역,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서울: CLC, 2012), 21.

3) R. Kent Hughes, *Preaching the Word: Colossians and Philemon*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9), 44.



## 2. 사역의 근거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자신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결과로 되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이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소에서 출생하여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하여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다(행 22:3-4, 26:9-11, 갈 1:14).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므로 주님께로부터 종과 증인의 사명을 받아 이제는 이전과는 정반대로 교회의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어졌던 것이다(행 26:12-18).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일꾼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는데,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a minister of Christ Jesus)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a herald and an apostle and a teacher)로 세움을 입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주권적인 것처럼 사역에의 부르심에서도 그러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따라 섬김의 사역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은사들을 부여하시는 것이다(고전 12:1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딤후전 3:15),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G. 베너(David G. Benner)는 다음과 같이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명 없이 영혼 돌봄은 단순한 직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불행히도 많은 영혼을 돌보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영혼을 돌보는 자가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순종으로 여길 때 그들의 돌봄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 돌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이 단순한 종교적 소명이 아닌 우리의 삶을 바쳐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강한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 단순한 직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4)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여받은 청지기직분에 대하여 주어진 그리스도께 사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할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마 25:24-25).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해야만 하며(행 26:19),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이 소명에 헌신하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딤후 4:7-8).

---

4) David G. Benner, *Care of Soul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전요섭, 김찬규 역, 『영혼 돌봄의 이해』(서울: CLC, 2010), 245.

### 3. 사역의 정신

사도바울은 본문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언급하므로 사역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정신이 되어져야 한다. 사역으로 인한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쁨이요 놀라운 기쁨이다. 이것은 사역에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한 것을 밝혀주고 있다.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여러 목회자들까지도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각한 표정과 우울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엘리야가 로템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이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너 너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부르짖을 때가 적지 아니한 것이다(왕상 19:4). 그러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고 구속사역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도 많은 이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사역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참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즉 기쁨으로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하셨다는 것이다. 존 맥아더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한 실재를 직면했을 때에도 그의 사역에 대한 기쁨을 결코 잃지 않으셨다. ...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나쁜 환경(bad circumstances)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쁜 관계(bad connections)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그 분과의 교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sup>5)</sup>

사도 바울은 때때로 그의 환경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결코 사역의 기쁨을 잃지 아니했다. 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후 4:8-9)라고 말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내적인 것이다.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이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고 유지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쁨은 겸손에 의해 발생되어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좋은 환경과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 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아 중심이 되어질 때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 진다. 그러한 것들은 바울에게는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사역자들처럼,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전파자들이 영광을 얻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은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으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빌 1:18)고 썼던 것이다. 순교의 가능성까지 직면하면서도 그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빌 1:18)고 언급하였다. 빌립 보에서 매 맞고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기쁨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었다(골 2:5, 살전 2:19-20, 몬 7). ... 환경들과 사람들과 염려는 사역의 기쁨을 빼앗아 갈려고 하는 도적들이다. 겸손과 그리스

5)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73.

도께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물려주신 기쁨을 보호한다.<sup>6)</sup>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 역시 “만일 섬김을 위한 여러분의 유일한 동기가 인정받고, 감사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상당히 실망할 준비를 미리 하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의 행동-또는 어떤 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은 여러분에게 별로 큰 문제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7)</sup>

## 4. 사역의 고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사역자가 받는 고난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괴로움은 원문 상으로 복수형인 “나의 괴로움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전파와 사역으로 인하여 감옥에 투옥되어지므로 당하게 되어진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sup>8)</sup>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으며(행 5:41),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

6)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74.

7) Wiersbe, *On Being a Servant of God*, 최용수 역,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171.

8) William Hendrikson, *A Commentary on Colossians & Philemon*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86.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주를 위한 고난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 (2)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고 말씀하고 있다(참고, 벤전 1:6-7). 팩커(J. I. Packer)는 “고난은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예외없이 기대되어져야 하고, 소중한 것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sup>9)</sup>고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히 5:8-9은 성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므로, 고난이 빼 놓을 수 없는 영적성장의 필수적인 요소(integral factor)가 됨을 밝힌다. 그래서 시 119:67, 71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과 그 말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역시 고후 1:8-9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환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sup>10)</sup>라고

9) J. I. Packer, *Rediscovering Holiness* (Ann Arbor,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1992), 251.

10) Billy Graham, *Hope for the Troubled Heart* (TX: Word Publishing, 1990), 정규채 역,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 (서울: 조이선교회, 1992), 96에서 재인용.

말함바 있다. (3)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 15:18)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4)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4) 고난은 미래의 보상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엡 3:13, 히 10:32-35).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7-18)라고 이를 증거하고 있다. (5) 고난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고후 4:7-12, 딤후 2:10).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 스테반의 순교의 순간을 지켜보았던 사울이 마침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졌던 것을 사도행전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행 7:58-60, 8:1-8, 11:19-21).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고후 1:6)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23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속죄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본문의 “고난”(thlipsis)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이 복음전파와 교회사역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에 도움을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 미워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막 13:13).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흔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리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고난을 통한 복음전파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고난에 참여하므로 주님과 가장 풍성한 연합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우리가 퍽박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의 가치가 땅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는 모든 것의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쁘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으며, 또 이 보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준다”라고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sup>11)</sup>



## 5. 사역의 영역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디아코노스: 사역자)이 된 것은 본문 25절에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sup>12)</sup>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자신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사역의 영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온전히] 알리기 위해서 사역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디 루카스(Dick Lucas)는 “25절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완수하겠다는 야망의 표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후 문맥을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온전한 복음-완전한 기독교 메시지-을 전하려는 결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낫다. ...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오로지 강해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알려질 수 있다. ... 그런 성경 가르침과 성경공부가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본문의 의미를 설명한다.<sup>13)</sup>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리는 것”(골 1:25), 즉

- 
- 11)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김대영 역, 『열방을 향해 가라』 (서울: 좋은 씨앗, 2003), 162.
- 12) 본문의 “직분”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직역하면 “집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 단어에서 “오이코노모스” 즉 청지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따라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의미한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고 일꾼들을 감독하고 물자를 지급, 분배하며 집 전체를 돌보는 관리인이었다. 따라서 청지기는 개인적 권위나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단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며 주인의 일을 돌보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청지기 역시 노예에 불과했다. Douglas J. Moo는 본문의 직분은 “바울의 사도적 사역(his apostolic ministry)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다.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8), 154.
- 13) Dick Lucas, *The Message of Colossians & Philemon* (England: IVP, 1980), 정옥배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 강해』 (서울: IVP, 2008), 84-85.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행 20:27)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일편단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으며, 이러한 사역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딤후 4:7).

사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3번의 선교여행을 하였는데 매번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이미 방문했던 지역을 포함해서 핵심지역을 찾아 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 그가 행했던 것처럼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역의 영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팔레스틴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주님이 끼치신 영향보다 더 큰 것을 행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셨기에 그의 사역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맞추셨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다(요 5:30).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맞추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요 2:4)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요 17:1)라고 말씀하시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맞추셨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요 18:36)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눅

12:31)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눅 11:2)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정치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구분하시면서 사역에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마 22:17-22). 넷째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셨다.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소수의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므로 그의 사역을 집중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분주한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며, 조금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역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도록 부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부름받은 지체들이 각각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을 행하도록 다른 은사들을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브루스 밀른(Bruce Milne)은 요한복음 17장 4절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언급에 대하여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 분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분께 똑같은 방식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또는 모든 필요를 다 돕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의 한계 내에서 그 특정한 일을 찾아 행할 때 성취감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4)</sup> 그러므로 참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역의 영역을

14) Bruce Milne, *The Message of John* (England: IVP, 1993), 정옥배 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울: IVP, 1995), 316, 320.

분별하여 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사역을 제한할 수 있어야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존 비비어(John Bevere)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존, 앞으로 너는 사역을 할 때 다른 이의 사역을 무조건 그대로 따라 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다른 이의 사역 방식이 매우 근사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와 동일한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 한 내가 그들의 사역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님은 나에게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다. “혹시 사역의 기회가 생겨도 단순히 외관상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락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아야 한다.” 주님이 이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만큼이나 분명하게 일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시행착오를 통해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이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sup>15)</sup>

---

15) John Bevere, *Devil's Door* (Lake Mary, FL: Charisma House, 1996), 임정아역, 『존 비비어의 분별력』 (서울: 순전한 나드, 2007), 106.

## 6. 사역의 주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선포한 메시지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sup>16)</sup>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는 것이었다(골 1:26).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비밀 종교들에서처럼 특정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나 의식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계시되어진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sup>17)</sup>

이 비밀의 진리는 구약시대나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밀(골 2:2-3, 9),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비밀(롬 11:25), 불법에 대한 비밀(살후 2:7, 계 17:5, 7), 교회 안에서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통일성에 대한 비밀(엡 3:3-6), 부활체로의 변화에 대한 비밀(고전 15:51)을 포함하고 있다. 이 비밀의 진리는 오직 참된 신자들인 성도들에게만 알게 되는 것이다(고전 2:7-16).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비밀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발견되거나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로써만 가능하게 됨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가운데 계시한 모든 비밀들 가운데서 가장 심오한

16) “만세와 만대로부터”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최초의 시대와 세대가 만들어진 이후로”라는 의미로 “아주 긴 세월 동안에”라는 뜻이다.

17) “비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George Barlow,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Philippians, Colossians, I-II Thessalonia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박양조 역, 『베이커성경주석: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 후서』 (서울: 기독교문사, 1987), 219-220.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속에 사신다는 것이다.<sup>18)</sup> 구약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그의 구속하신 교회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은 계시되지 않았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 모든 신자들 속에 영속적으로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롬 8:9, 고전 6:19, 20, 엡 2:22). 이제 모든 신자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다(요 14:23, 롬 8:9-10, 갈 2:20, 엡 1:7, 17-18, 3:8-10, 16-19, 빌 4:19). 이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후 6:16).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광의 소망의 원천이시며 복음 사역의 주제이다. 복음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그 복음이 현재의 기쁨과 도움을 약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영원한 영예와 축복과 영광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천국의 소망의 닷 즉 영원히 미래의 지극한 축복의 보증이다(고후 5:1-5, 엡 1:13-14).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경험이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다.

랄프 마틴(Ralph P. Martin)은 예수님이 본문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언급에 대하여 “그것은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의 회복에 대한 기대이다. 이것은 두 아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흔적이다. 첫 번째 아담이 낙원에서 잃어버린 것이 새 아담 즉 그리스도와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의 백성들 의해 다시 회복되어 진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9)</sup>

18)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채우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Charles H. Spurgeon, *Treasury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김귀탁 역,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1), 122-124.

벤 캠펠 존슨(Ben Campbell Johnson)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분처럼 지음 받았고, 그분을 위해 지음 받았다. 하나님의 뜻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영광이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과 순결함에 모순되는 부분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인정이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바로 그것이 영광이다.”<sup>20)</sup>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한된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안정된 경제생활에 대한 조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이미 믿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거주하시고 다스리시므로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요 17:22),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므로 그 영광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에 대한 보증이 되시기에(롬 8:18),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1)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신성한 성품”(divine nature)

19) Ralph P. Martin,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1973), 72.

20) Ben Campbell Johnson, *Living Before God: Deepening Our Sense of the Divine Presence* (Grand Rapids: Eerdmans, 2000), 박주성 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 (서울: CUP, 2010), 216.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2)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는 것(골 1:12), 3)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는 것(골 1:22, 28, 살전 3:13), 4) 기업의 상을 받는 것(골 3:24, 딤후 4:8), 5)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롬 8:18-23, 고전 15:43,49, 빌 3:21, 살전 4:13-17)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참으로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주제로 삼아야하며, 사역 가운데 항상 이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골 3:23).

## 7. 사역의 내용과 형태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이라고 사역의 내용과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내용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음을 현재시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N. T. 라이트(Wright)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 선포자와 교사에게 자신들이 부름받은 소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지, (그러한 일이 아무리 좋고 필요할지라도) 시사에 대해 논평하고, 다양한 인간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sup>21)</sup> 여기에 전파한다는 것은 “완전한 진리와 일어난

21) N. T. Wright,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Colossians and Philemon* (United Kingdom: IVP, 1986), 이승호 역, 『틴데일 신약주석: 골로새서, 빌레몬서』(서울: CLC, 2014), 142.



사건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설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sup>22)</sup>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권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적극적인 요소이다.

사역의 형태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권하는 것'(noutheteo)이다. 히버트(Hieber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동사의 문자적 의미는 ‘마음에 두다’(put in mind)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가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경계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경성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의지에 호소하는 것을 뜻한다.”<sup>23)</sup> 이와 같이, 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세와 행동들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24)</sup> 따라서 권하는 것은 회개와 결부되며, 사람의 행위와 마음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행한 고별설교 중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본문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의 “권하고”라는 단어는 살전 5장 14절의 “권계하며”라는 동사와 고전 4:14의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권면의 사역의 형태는 모든 신자들 역시 행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살후 3장 14-15절에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22)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79.

23) D. Edmond Hiebert,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249.

24) Richard R. Melick, J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Philipians, Colossians, Philemon*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1), 212.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이 권하는 사역이 모든 신자들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골 3:16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면하고”라는 동사가 본문의 “권하고”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권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하는 자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고 이런 권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형태를 본받아 사랑과 운유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경계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권면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역의 형태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가르치는 것’(didasko)이다. 이 가르침은 “적극적인 진리를 나누어주는 것”(imparting positive truth) 혹은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the more positive activity of communicating Christian truth)을 의미한다.<sup>25)</sup> “가르침은 회심자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독교 진리의 정돈된 제시이다(the orderly presentation of Christian truth)”<sup>26)</sup> 따라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믿음과 교리와 결부되며, 사람의 지성과 관계를 가진다.

이 가르침 역시 목회사역자 뿐만 아니라(딤후전 3:2), 모든 신자들이 행해야 할 책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25)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79. ; Moo,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160.

26) Melick, J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Philippians, Colossians, Philemon*, 242.

골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이 가르침과 권면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이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여든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지상교회 구성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분부하신 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된 두 사역의 형태는 “모든 지혜” 가운데서 행해져야 함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지혜는 “실재적인 통찰력 즉 거룩한 행위를 위한 성경적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7)</sup>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지식을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최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sup>28)</sup>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울의 일관된 사역의 패턴은 가르침과 권하는 것을 연결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의 일반 교리적인 진리들의 문맥 속에서 가져오는 것이었다. 교리적인 가르침은 실재적인 훈계에 의해 항상 이어졌다. 이것 역시 모든 사역들을 위한 패턴이 되어야만 한다.”<sup>29)</sup> 따라서 권하고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모든 지혜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시기와 지역과 사역 대상자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27)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79.

28) Hendrikson, *A Commentary on Colossians & Philemon*, 105.

29)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80.

## 8. 사역의 목표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 하반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사역 대상자들의 영적 성숙이었다. “여기서 뜻하는 바는 신앙과 인격이 장성함(엡 4:13)을 의미하며, 이것은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즉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0)</sup> 따라서 본문에서의 ‘완전한 자’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를 말하며 골 1장 22절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엡 4장 13절의 “온전한 사람”을 말한다. 골로새의 이단들은 이 완전함은 오직 소수의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성화의 과정에 있기에 이 영적 성숙은 이 생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롬 8:23),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고후 5:9; 살전 4:1), 영화롭게 하며(고전 10:31), 세상에서 도덕적인 탁월함(벧전 2:9)을 나타내는 성숙의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존 맥아더는 영적 성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반사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행하시는대로 자기도 행할찌 니라’는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요일 2:6; 골 4:12).

30) Curtis Vaugha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Colossian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193.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계속적인 교제와 순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셨다.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것은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온다. ... 몸뚱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와의 보다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게 될 때, 그의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영광의 한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한다. 경건한 삶의 모든 다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의 동인(agent) 역시 성령 하나님 이신데, 그를 떠나서는 가장 진실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효과가 없으며 (롬 8:26), 하나님 자신의 말씀조차도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진다(요 14:26, 16:13-14; 요일 2:20).<sup>31)</sup>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는 6가지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말씀(요 15:3, 행 20:32, 딤후 3:16-17, 벰전 2:2, 요일 2:5). 2) 기도(요 16:24, 행 2:1-4, 4:24-33, 골 4:12-13). 3) 시험(약 1:2-4, 벰전 1:6-7). 4) 고난(요 15:2, 고후 1:4-5, 빌 3:10, 벰전 5:10). 5) 사랑(엡 3:17-19, 4:15-16, 5:1-2, 요일 4:17), 6) 교제(롬 1:11-12, 16:3-16, 21-23, 고전 12:18-27, 엡 4:16). 이들 요소들 중에 시험과 고난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인 반면, 나머지 4가지 도구들인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교제는 교회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도구이다.<sup>32)</sup>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목표 역시 단순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진다. 사도 바울은 딤후 2장 2절에서 “또 네가

31) John F.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Ephesians* (Chicago: Moody Press, 1986), 157-158.

32) 임영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선교학』 (서울: 영문, 2012), 454-455.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이를 증거하고 있다.

딕 루카스(Dick Lucas)는 이런 사역의 목표는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느 지역교회에서든 28절에 나온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보통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심지어 바울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말이다(29절). 그러므로 이 편지 뒷부분에서(3:16) 골로새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이 이중적 사역에 참여하라는 말을 읽으면 흥미롭다. 언제나 그렇듯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을 뿐 아니라 사역에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sup>33)</sup>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던 영적 성숙에 있었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목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9. 사역의 원천과 자세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자신의 사역의 원천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천은 자신의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심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바울의 심령 속에서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한다’(energeo)는 단어는 현재분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활발하게 일하다’, ‘운동력 있게 일하다’,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하다’

33) Lucas, *The Message of Colossians & Philemon*, 86.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매 순간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사역자들 역시 이러한 사역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의 원천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세를 밝히고 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대상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문에서 “수고한다”(kopiao)는 단어를 “소진될 때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 즉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어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수고한다는 것이다. 이 동시에 바울은 “힘을 다하여”(agonizomai)라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므로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의 수고가 어떠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단어는 운동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을 위해 싸우다, 투쟁하다, 경쟁에 참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힘쓰는 바울의 극진한 수고와 노력을 지칭한다.”<sup>35)</sup>

이러한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였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사역의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관과 당한 고난을 고후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서 생생하게 언급하면서, 이런 사역의 장애물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의 사명을 수행해 나갔던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면,

34)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81.

35) Peter T. O'brien, *Word Biblical Commentary: Colossians, Philemon*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2), 90.

사도 바울처럼 사역의 원천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하여 딤크 루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울의 놀라운 대답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에 의해 그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받는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 바울은 ‘섬김을 위한 능력’을 믿음으로만 받는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만, 혹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의지할 때에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르치느라 수고할 때,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위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신다.”<sup>36)</sup>

따라서, 본문 29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으며, 게으른 사역자는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 10. 나오면서

하나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와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위하여 올바른 정신과 합당한 자세로서 헌신하며 주를 섬겼던 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가 이를 구체적으

---

36) Lucas, *The Message of Colossians & Philemon*, 98.



로 가르쳐 주고 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람도 예외없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받은바 사역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그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사역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는 여전히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10가지 사역의 독특한 요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9)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것이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자세로 그 사역으로 부르신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소망가운데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임영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선교학』. 서울: 영문, 2012.
- Barlow, George.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Philippians, Colossians, I-II Thessalonians*. 박양조 역. 『베이커성경주석: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Benner, David G. *Care of Souls*. 전요섭, 김찬규 역. 『영혼 돌봄의 이해』. 서울: CLC, 2010.
- Bevere, John. *Devil's Door*, 임정아 역. 『존 비비어의 분별력』. 서울: 순전한 나드, 2007.
- Graham, Billy. *Hope for the Troubled Heart*. 정규채 역.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 서울: 죠이 선교회, 1992.
- Hendrikson, William. *A Commentary on Colossians & Philemon*.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 Hiebert, D. Edmond.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 Hughes, R. Kent. *Preaching the Word: Colossians and Philemon*.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9.
- Johnson, Ben Campbell. *Living Before God: Deepening Our Sense of the Divine Presence*. 박주성 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 서울: CUP, 2010.
- Lucas, Dick. *The Message of Colossians & Philemon*. 정옥배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 강해』. 서울: IVP, 2008.
- MacArthur, John F.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Ephesians*. Chicago: Moody Press, 1986.
- .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Chicago: Moody Press, 1992.

- Martin, Ralph P.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1973.
- Melick, Jr. Richard 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Philippians, Colossians, Philemon*.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1.
- Milne, Bruce. *The Message of John*. 정옥배 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울: IVP, 1995.
- Moo, Douglas J.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8.
- O'Brien, Peter T. *Word Biblical Commentary: Colossians, Philemon*.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2.
- Packer, J. I. *Rediscovering Holiness*. Ann Arbor,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1992.
- Piper, John. *Let the Nations be Glad*. 김대영 역. 『열방을 향해 가라』. 서울: 좋은 씨앗, 2003.
- Spurgeon, Charles H. *Treasury of the Bible*. 김귀탁 역.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1.
- Vaughan, Curti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Colossian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 Wiersbe, Warren W. *On Being a Servant of God*. 최용수 역.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서울: CLC, 2012.
- Wright, N. T.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Colossians and Philemon*. 이승호 역. 『틴데일 신약주석: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울: CLC, 2014.